

강진군, 축산과 환경 공생 길 찾는다

정읍 축산업 선진 현장 방문
행정·축산단체·선도농가 참여
한우산업 육성·악취 저감 등 모색



강진원 강진군수 등 방문단은 지난 20일 전국 최대 축산시군 정읍시를 방문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 한우의 전국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강진군이 친환경적인 미래 축산환경 조성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일 강진완도축협 및 한우협회 임직원 10여 명과 함께 전국 축산물의 10%를 생산하고 있는 정읍시 선진 축산업 우수 현장을 방문했다.

강진군은 강진한우 전국브랜드 육성을 위해 축산업과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악취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강진원 군수가 직접 시찰에 나섰다. 또 강진한우 직거래 유통 확대를 위해 김영래 강진완도축협장과 윤순성 강진군한우협회장이 현장 방문에 참여해 행정, 축산단체, 선도농가가 함께 강진군 미래의 축산 발전 방향을 찾는데 머리를 맞췄다.

방문단은 정읍시청 축산과장과 축산정책팀장 등을 만나 정읍시 축산현황과 주요 우수시책 및 축산악취저감법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진군 점막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성그린농장(대표 김상준)을 방문해 직접 돌아보며 차별화된 한우 생산과 인큐베이터 사육 방법 등 송아지 선진 사양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 215명의 회원권을 보유한 단품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정읍시 대표 브랜드인 '단품미

인한우' 육성정책과 TMF 사료공장을 벤치마킹하고, 순정축협 한우명품관을 찾아 축협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 운영 상황과 온라인 직거래 판매 등 선진 직판사례를 견학했다.

강진원 군수는 "지속적으로 선진사례를 도입해 강진군 축산 발전을 가속화하고 환경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암소 비율이 높은 우리 군의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해 암소 고급육 신규브랜드를 조기에 출시하고 공동브랜드인 강진직판한우와 함께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진행해 새로운 시장개척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이번 현장견학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강진군 한우산업 육성방안과 축산시설 악취저감 우수시책을 접목해 축산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환경과의 공생 관계를 찾는 계획이다.

축산농가 의식개선 컨설팅과 악취저감제 공급 확대 및 안개분무 등 시설 지원을 통해 악취를 문제를 개선하고, 2023년부터 온라인 판매망 확대와 대도시 직거래판매 장터를 운영해 소비자에게 강진 한우는 맛있다. 최고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강진 한우 마케팅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진군은 한우산업 4대 핵심정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평균 등급율 향상(1등급 75% 이상) ▲평균 생산비용 절감(20% 이상) ▲강진한우 명품화-송아지 브랜드화 투트랙(Two Track) 육성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목표로 '강진한우 전국 브랜드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나주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현장회의

올해 90곳 마을별 사업 추진

나주시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점검을 실시했다.

나주시는 주민 주도로 마을을 가꾸는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점검을 위한 현장회의를 가졌다

오름마을 만들기는 '인식전환', '환경정화', '경관개선' 3대 목표 아래 오는 2025년까지 마을 주민들이 주도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시책 사업이다. 나주시 내 마을 90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중 72곳이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마을은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장 회의는 사업 추진담당인 강영구 부시장 주재로 각 읍·면·동 담당자들과 남평읍 남평마을, 이창동 정평마을을 방문해 마을별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살폈다.

남평마을은 마을 공터를 활용해 사계절 푸름과 휴식이 있는 화분쉼터를 조성하고 야외 조명을 설치해 야간 시간대에도 마을 경관에 윤치를 더했다.

앞에는 영산강이 흐르고 뒤편에는 가야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정평마을은 쾌적한 마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목표도 화단 조성, 가야산 진입로 입구 환경 정비, 벽화 그리기 등을 추진했다.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은 2개 마을 현장 회의를 마친 뒤 "오름마을 사업을 현재 시에서 자체 추진 중인 마을 가꾸기와 같은 유사 사업과 연계하고 마을 수익 창출사업을 발굴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청정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단체, 주민들 모두가 함께 사후 관리에도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g@kwangju.co.kr

"결혼 50년 축하합니다"…함평국향대전서 노부부 금혼식



함평군은 지난 22일 국향대전이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이현수·양정순 부부와 정기풍·심기임 부부의 금혼식(金婚式)을 열었다. 금혼식은 부부의 소중함과 화목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혼인 후 50년이 되는 해를 축하하는 의식이다. 전통혼례 방식을 재현한 이날 금혼식은 가족·친지와 군민 그리고 국향대전 관람객들의 축하 속에서 치러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상의 함평군수가 직접 참석해 혼례 성사를 하늘에 고하는 고천문을 낭독하며 부부의 행복을 축원했다. <함평군 제공>

장성군 복지사각 해소

전군민 주민등록 조사

연말까지...대면·비대면 병행

장성군이 올해 연말까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일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읍·면 담당공무원과 마을 이·동장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우선 확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휴대폰용 정부24앱을 이용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도 새롭게 도입했다.

단,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도 추가로 전화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인 '보건복지부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등 고위험군 취약 주민',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가구', '장기 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가구' 등은 방문조사를 받는다.

장성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 '어머니 품 천관산 프로젝트' 용역 보고회

생태환경 고려 관광 발전 방안 모색

장흥군이 호남을 대표하는 명산인 천관산의 관광 발전에 시동을 걸었다.

장흥군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어머니 품 천관산 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 보고회에는 서부지방산림청장,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범위에 대한 공간적범위를

설정하고 제한구역과 허용사항, 보전과 개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천관산에 분포·산재 되어 있는 다양한 점적요소 에 대한 선적 연결(접근)과 면적(공간적) 확대 방안 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모아졌다.

호남 대표 명산인 천관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흥군은 역사·문화·예술, 유래(전설), 생태환경 및 문헌 등 종합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천관산 권 관광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청자불축제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주제 '食'...12월 5~12일 접수

강진청자불축제 기획행사 일환으로 열리는 '제 22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청자공모전 1차 서류접수는 12월 5일부터 12월 까지 8일간이다. 당초 8월에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청자축제가 내년 2월로 늦춰짐에 따라 접수 일정도 연기됐다.

공모전 주제는 '食(먹을 식)'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청자 작품은 출품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공모 주제였던 '飮(마실 음)'과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제작작은 청자 태도와 유약으로 제작해야 한다.

주제에 맞춰 청자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형태와 기법으로 표현하고 상품성 및 실용성을 겸비한 작품이면 작가의 국적, 연령에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입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특선 10명을 선별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2023년 1월13일 발표하며, 입상작은 2월부터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에 전시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려청자박물관 전시운영팀으로 전화하거나 고려청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